

안드레이 콜릭 주한 러시아 대사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경식 발행인

김형대·조경희·정홍균 기자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 이래 상호 신뢰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 이래 상호 신뢰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 관계는 200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9년 양국 교역액이 250억불을 달성하여 수교 직후 대비 120배 이상 증가하는 한편, 2014년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 이후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상호 방문객이 80만에 이르는 등 양국관계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러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 신북방정책을 발표하였다. 2018. 6월 문 대통령은 19년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 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어 한국정부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양국의 관계발전과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 놓고 노력을 경진하고 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러 상호교류의 해” 행사 및 기념사업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 정상간 합의한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농림·수산, 보건·의료, 혁신 등 9개 분야별 협력강화 방안인 “아홉개 다리(Nine-Bridge)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면서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중이며, 또한, 과학기술, 스타트업, 금융 등으로 한-러 양국간 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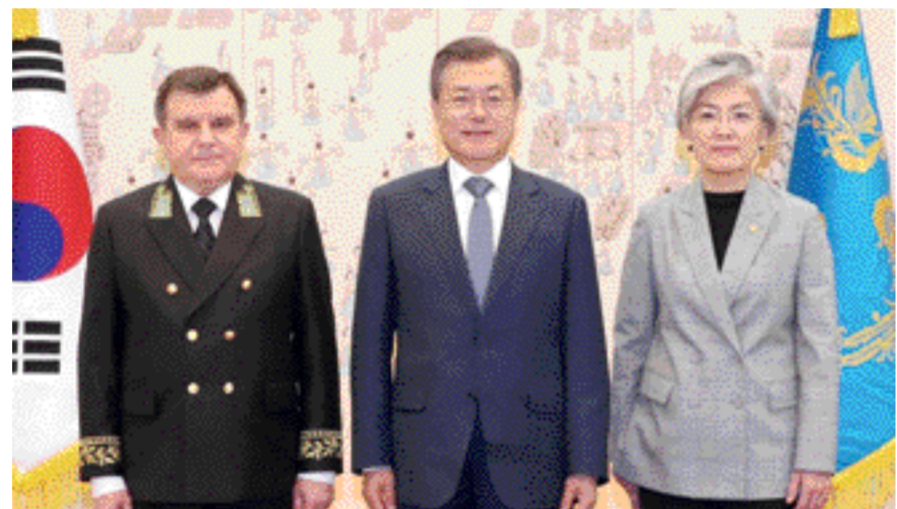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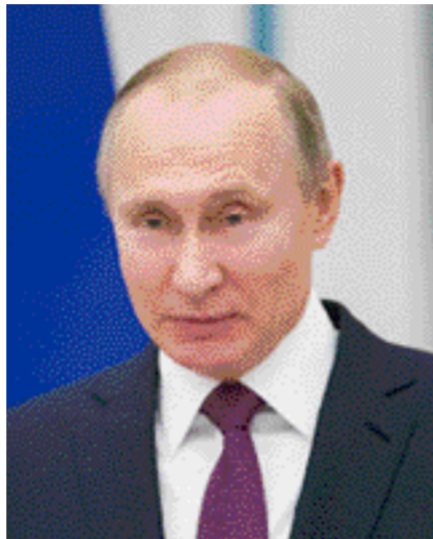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무역량 증가와 함께 관계와 우정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양국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북방정책, 특히 러시아의 협력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증진에 있어서 경제협력은 매우 하다.



문재인 대통령 (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중앙) 안드레이 콜릭(왼쪽)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본지와 가진 단독 특별 인터뷰에서, ‘안드레이 콜릭’ 주한 러시아 연방대사는 “양국간의 경제협력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계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콜릭 대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롯데,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적 기업그룹들이 러시아 경제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제조 산업에 대한 최초의 한국인 기업의 투자자는 2000년 대초 모스크바 지역에 라면 공장을 세운 코야(한국아구르트)이다. 한국에서 이 회사는 요거트를 전문으로 한다. 요즘 코야는 러시아 라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공장이 두 곳이나 있다.”

러시아에는 총 150개 이상의 한국 대기업이 활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액은 총 27억 달러에 달한다.

이 밖에 경험과 양국 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다.

(주)알에이치포커스(RH Focus Corp)

항공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3년 러시아 카모프 헬기를 한국에 최초 도입한 이래 지난 24년간 산림청, 해경, 공군, 경찰청, 시도소방, 국립공원 및 민간운항업체에 총 62대의 대형 헬리콥터 (Ka-32, Mi-172)를 후속지원 해

오면서 쌓아온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LG전자

1990년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2006년 9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PDP/LCD TV, 오디오 및 냉장고 세탁기 등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제품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

1990년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2008년 칼루가 주에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PDP/LCD TV 및 냉장고 세탁기 등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제품 생산 중이다. 2018년 5월 29일, AI 센터를 모스크바에 개소하였다.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2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경동나비엔

2017년 7월 러시아 내의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바 있으며 러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CIS 지역 국가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더욱이 법인 설립 5년만 실적으로, 100만대 판매는 현지 보일러 업체와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처음이다.

오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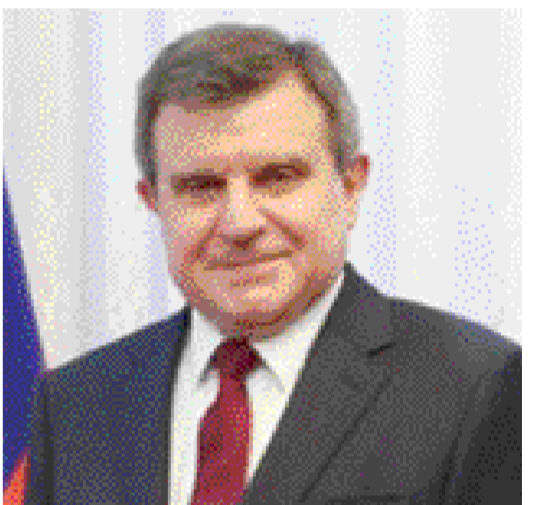
1993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시작하여 2006년 트베리 주에 제 1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



2018년 6월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산더 마살체프 러시아 무역대표부, (주)코리아포스트 조경희 부회 안드레이 콜릭 주한 러시아대사, 러시아 무역 대표의 카리나 칼리 코바 특사입니다.



경제 협력 로드맵에 관한 한-러시아 공동 워크숍

년 노보시비리스크 지역에 제 2공장을 설립 가동 중이다.

롯데제과

2010년 8,000만 달러 규모의 제과공장을 모스크바주에 설립하여 초코파이, 빼빼로 등의 제품을 생산 중이다.

한국아구르트

1997년 블라디보스톡 사업소를 시작으로 2004년 모스크바 라멘스코예라는 지역에 제 1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6월 17일 라잔시에서 제 2공장을 설립해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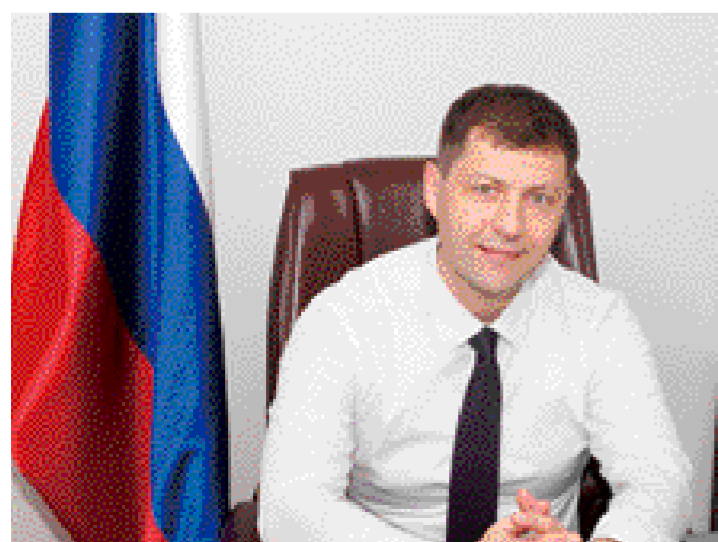
CJ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인 라비올리(Ravioli) 지분 100%를 2017년 6월 1일 3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수하였으며, 추가로 공정 현대화 및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향후 2년간 1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다. 비비고 브랜드로 한국식 만두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K-food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카멘카 지역에 부품단지 포함 7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2010년 9월 21일에 준공식을 거쳐

현재 연산 23만 대 규모의 차량을 현지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9일 누적 생산량 100만 대를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진출에 맞추어 계열사(현대모비스, 엠코, 글로벌비스 등) 및 부품 협력업체도(성우하이텍, 세종공업, 신영 등) 러시아에 동반 진출했다.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로 2016년-2017년에도 생산라인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제 2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생산부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마살체프 러시아 무역대표부



RH 포커스 코퍼레이션은 한국에 있는 러시아 헬리콥터의 공식 판매처이다.



제15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